

# 뮤지컬 보컬 코치의 기능과 역할

## Functions and Roles of Musical Vocal Coach

임지현\*, 민경원\*\*

순천향대학교 공연영상미디어학과\*, 순천향대학교 공연영상학과\*\*

Ji-hyun Lim(vocalistlim@gmail.com)\*, Kyung-won Min(mincinema@naver.com)\*\*

### 요약

뮤지컬은 제작부터 연출, 작가, 작곡가, 작사가를 비롯하여 안무가, 음악감독, 배우 등 많은 전문가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처럼 하나의 뮤지컬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다 함께 창의력을 발휘해야 한다. 라이선스 뮤지컬이 아닌 이상 먼저 작가, 작곡가, 작사가를 통해 한 작품의 기초 틀이 만들어진다. 이들을 크리에이티브 팀(Creative Team)이라 하고 연출가, 안무가, 배우, 스태프 등을 프로덕션 팀(Production Team)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두 팀을 합쳐서 크리에이티브 스태프(Creative Staff)이라고 한다. 이후 제작 규모에 따라 2차 크리에이티브 스태프들이 참여하게 되고 실제 연습에 들어가게 되는데 음악 감독, 무대 디자이너, 음향 디자이너 등 각 팀의 세부 구성을 이루게 된다. 뮤지컬 크리에이티브 팀에서의 음악 관련 스태프들은 사실 작품의 음악적 색깔과 장르를 결정하는 음악 슈퍼바이저로부터 시작되어 세분화 되고 분업화 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작곡가 또는 음악감독이 그 역할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외 뮤지컬 제작 과정 시스템의 사례를 분석하여 작업 공정의 세분화에 따른 보컬 코치의 역할과 개념을 정립하고, 국내 뮤지컬산업에서 보컬 코치의 역할과 필요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인 보이스 티처들과 뮤지컬 보컬 코치의 역할과 기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인터뷰를 통한 국내 뮤지컬 보컬 코치 사례를 함께 알아보았다. 그와 더불어 국내 뮤지컬 음악 크리에이티브팀 시스템에 관해 고찰해 보았다.

■ 중심어 : | 뮤지컬 | 보컬코치 | 뮤지컬 제작 |

### Abstract

Musical is produced by multiple specialists including director, writer, composer, lyricist, choreographer, music director, actors/actresses and so on. For the success of one musical, all the people with different background should demonstrate their creativities. The basic frame of a work is made by writer, composer and lyricist first unless it is a licensed musical. They are called as Creative Team, and also director, choreographer, actors/actresses and staff are called as Production Team. Both teams are collectively called as Creative Staff. Then, the secondary creative staff members may participate in the work depending on the production size, and each team can consist of the members such as music director, stage designer, sound designer and so on. The staff related to music in Creative Team of the musical is developed with the initiation from the music supervisor who decides the musical color and genre of the work, the fragmentation and the specialization. However, composer or music director takes these roles in charge in Korea.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the roles and concept of vocal coach according to the fragmentation of working process and to investigate their roles and needs in the domestic musical industry upon case analysis of musical production processes in overseas. The common things and differences in the roles and the functions between ordinary voice teachers and musical vocal coaches were analyzed and the cases of vocal coach in the Korean musicals were reviewed by the interviews. In addition, creative team system was reviewed in the Korean musicals.

■ keyword : | Musical | Vocal Coach | Musical Production |

\* 본 연구는 순천향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하였음.

접수일자 : 2017년 12월 06일

수정일자 : 2018년 01월 04일

심사완료일 : 2018년 01월 04일

교신저자 : 민경원, e-mail : mincinema@naver.com

## I. 서론

뮤지컬 산업의 중심에 있는 웨스트엔드와 브로드웨이에서 지속적으로 많은 작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국내 뮤지컬 산업도 해가 거듭될수록 발전하고 있다. 브로드웨이 리그(Broadway League)의 통계에 따르면 브로드웨이에서 2016-2017년 기존의 공연을 제외한 45개의 새로운 프로덕션의 작품들이 올려지고 있으며, 매년 계속해서 작품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1]. 뮤지컬 시장의 확장에 따른 작품들의 완성도에 대한 기대와 발전은 뮤지컬 제작 구조와 역할의 세분화, 그에 따른 전문성을 더욱 필요로 한다. 이미 뮤지컬을 대표하는 미국과 영국에서는 뮤지컬 제작 구조의 세분화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내의 제작 규모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내 뮤지컬 시장은 여전히 성장할 여지가 있지만 외형적 성장이 내적 성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2].

해외 대형 뮤지컬 작품이 결정되고 제작팀 즉, 크리에이티브팀의 뮤지컬은 크게 연기, 춤, 노래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뮤지컬에서 음악은 이 세 부분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노래하는 배우’의 역할은 뮤지컬이 다른 장르와 구분되어지는 가장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캐릭터에 맞는 노래 잘하는 배우’를 오디션 통해 선발하지만, 배우가 대사와 노래를 매끄럽게 드라마로 잘 표현하기 위한 작업은 필수적이다. 이미 웨스트엔드와 브로드웨이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많은 작품에서 보컬 코치가 해결해 주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보컬 코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현실인 것은 물론, 음악감독이 음악의 대부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며 보컬 코치의 역할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컬 훈련은 한 배우가 무대에서 관객과 함께 호흡하고 배우와 관객 사이의 의사소통 및 감정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대단히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연기나 음악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보컬 코치들이 발성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장르에 따른 해석도 없이 각기 다른 스타일의 음악에서도 동일한 발성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캐릭터로서의 드라마적 분석에 대한 접근으로 나아가지 못하

는 경우가 많다. 현재 국내에서 뮤지컬 보컬 코치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부족하기에 당연히 나타나는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보컬 코치와 같은 세분화된 전문 인력을 통해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배우들의 기량을 향상시켜주고 더 나은 뮤지컬의 완성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외 뮤지컬 제작 시스템의 사례를 분석하여 뮤지컬 제작 세분화에 따른 보컬 코치 역할과 개념을 살펴보고 국내 뮤지컬 산업에서 보컬 코치의 역할과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일반 보이스 티처들과 뮤지컬 보컬 코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보컬 코치의 기능과 역할을 알아보고자 한다.

## II. 본론

### 1. 뮤지컬 음악 크리에이티브 스태프의 구조

뮤지컬은 종합예술의 형태로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가는 독특한 작업방식을 가지고 있다[4]. 뮤지컬은 제작부터 연출, 작가, 작곡가, 작사가를 비롯하여 안무가, 음악감독, 배우 등 많은 전문가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처럼 하나의 뮤지컬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다 함께 창의력을 발휘해야 한다. 라이선스 뮤지컬이 아닌 이상 먼저 작가, 작곡가, 작사가를 통해 한 작품의 기초틀이 만들어진다. 이들을 크리에이티브 팀(Creative Team)이라 하고 연출가, 안무가, 배우, 스태프 등을 프로덕션 팀(Production Team)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두 팀을 합쳐서 크리에이티브 스태프(Creative Staff)이라고 한다. 이후 제작 규모에 따라 2차 크리에이티브 스태프들이 참여하게 되고 실제 연습에 들어가게 되는데 음악감독, 무대 디자이너, 음향 디자이너 등 각 팀의 세부 구성을 이루게 된다[5].

뮤지컬 크리에이티브 팀에서의 음악 관련 스태프들은 사실 작품의 음악적 색깔과 장르를 결정하는 음악 슈퍼바이저로부터 시작되어 세분화되고 분업화 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작곡가 또는 음악감독이 그 역할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 1]은 해외 크리에이티브 스태프들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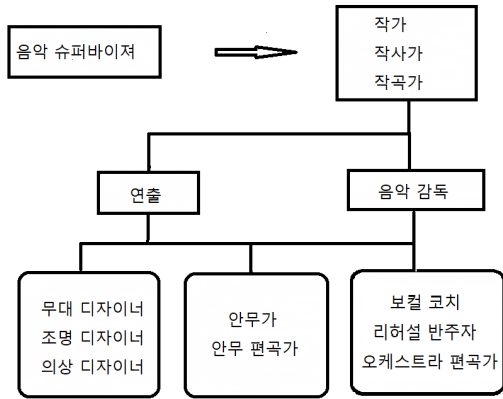


그림 1. 크리에이티브 스템의 구성

음악 관련 크리에이티브 스템의 구성은 제작 규모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어진다. 1차 크리에이티브 스템으로 작곡가, 작사가, 작곡가로 구성되어지고, 2차 크리에이티브 스템으로는 크게는 연출, 음악감독이 있으며, 세분화된 전문인력으로 무대 디자이너, 조명디자이너, 의상 디자이너 그리고 안무가와 안무 편곡가가 있다. 음악 부분으로는 보컬 코치, 오케스트라 편곡, 리허설 반주자 등이 있다. 하지만 해외 크리에이티브 팀과 달리 국내에서는 음악감독이 작곡 뿐 아니라 음악관련 모든 부분을 혼자 담당하며 지도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보컬을 전공하지 않은 음악감독들이 보컬 코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 그 영역과 역할이 제한되어져있다.

## 2. 뮤지컬 보컬 코치의 기능과 역할

국내의 뮤지컬 보컬 지도의 시초는 1962년 드라마센터 최초의 뮤지컬 공연 <포기와 베스>에서 배우들의 노래 지도를 맡은 가수 출신 강춘희로 볼 수 있다[6]. 최초의 국내 뮤지컬에서 노래 지도의 역할을 따로 두었다는 것은 당시에도 보컬 코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뮤지컬 보컬 코치는 목소리에 기본적인 발성법이 가능한 배우가 그 테크닉을 가지고 무대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응용하여 무대에서 활용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7]. 뮤지컬이 다른 가창과 구분되어지는 가장 큰 차이점은 노래에 연기가 더해진다는 점이다.

즉, 말하는 목소리와 노래가 어색하지 않게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적인 발성법에 연기와 노래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뮤지컬 특성들에 맞는 발성법과 방법들을 지도하는 것이 보컬 코치의 역할이다. 또한 뮤지컬 작품은 오페레타에서 락까지 음악의 장르가 다양하다. 뮤지컬 보컬 코치는 보이스 티처의 역할을 넘어서 음악의 모든 장르를 아우를 수 있는 넓은 지식이 필요하다.

### 1) 보이스 티처의 개념과 역할

보이스 티처는 클래식 성악, 실용음악, 뮤지컬 등의 모든 보이스 교육을 담당하는 많은 교육자들을 통틀어 지칭하며, 국내에서는 보컬 선생님 또는 보컬 트레이너라는 용어로 사용된다.

보이스 티처는 편안하고 건강하게 노래하기 위한 발성방법들과 공명 훈련, 그리고 각자의 가장 좋은 소리를 찾아주고 올바른 소리로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8]. 즉, 좋은 보이스 티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리의 장점들을 이끌어 내주고 그것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하고 강화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는 것이다.

보이스 티처의 역할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몸의 구조와 성대에 대한 이해(Physiology)로 신체정렬(Releasing The Body), 호흡(Breathing), 노래를 할 때 필요한 전반적인 발성방법들(Exercises)과 소리의 강화(Developing the voice)를 위한 훈련 등이 있다[9].

첫번째로, 보이스 티처는 우리의 몸을 악기로 생각하고 각각의 구조와 역할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다. 가창을 하기에 앞서 우리 몸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마치 악기를 다루기 전에 악기를 살펴보는 것과 같다.

노래를 하기 위한 우리의 몸의 구조를 [그림 2]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 발음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혀, 턱, 입술, 연구개, 이가 있고 공명을 담당하는 성도, 목구멍, 비강, 구강 그리고 발성기관인 성대와 그를 덮고 있는 후두가 있다. 또한 호흡조절 기능을 하는 기도와 폐 그리고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인 횡격막과 복근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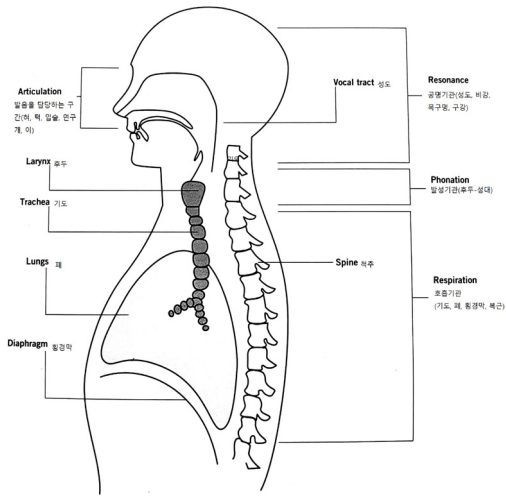


그림 2. 몸의 구조-상체[10]

보이스 티처는 이들의 위치와 역할들을 이해하여 노래할 때 몸이 어떻게 사용되며 작용하는지를 알아야한다. 보이스 티처는 피교육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몸을 컨트롤 하여 노래 할 수 있도록 기초 이론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우리의 몸의 구조를 이해한 후 올바른 신체정렬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의 몸은 오랜 습관과 행동으로 좋지 않은 자세가 형성되거나 불필요한 긴장감을 일으키는데, 이들은 노래를 부를 때에 가장 많은 문제점들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된다. 바른 자세 즉, 신체 정렬을 통해 좀 더 편안하게 노래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올바른 호흡을 통해 좀 더 편안하게 노래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가창 시 호흡은 항상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야 한다. 적절한 호흡의 압력과 긴장감을 유지하여 적절한 흉복식 호흡 사용을 하는 것은 가창 시 매우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10]. 하지만 노래를 처음 시작할 때 호흡이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것이 대부분이므로 이를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

넷째, 다양한 발성 훈련을 통해 음역대와 소리를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앞에서 언급한 몸의 구조와 자세, 호흡을 기억하고 부족한 소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연습 방법들을 적용하여 실질적으로 소리 내는 연습을 한다.

발성 훈련은 운동에서 기초 체력을 쌓는 것과 같다. 성대 진동, 공명, 호흡, 음역대의 확장, 소리의 연결 등 노래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기초 발성 연습을 통해 소리를 훈련하여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위의 네 가지 훈련들은 모든 가창을 다루는 분야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공통되는 보이스 티처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 2.2 인터뷰를 통한 국내 뮤지컬 보컬 코치 사례

보이스 티처는 몸의 구조와 신체정렬, 올바른 호흡과 발성을 통해 소리를 강화시키는 등의 노래를 부르기 위한 기본적인 원리와 방법들을 제시한다. 보컬 코치는 그와 더불어 좀 더 확장된 영역들을 담당하고 작품에서 배우들을 조력하는 역할을 한다. 국내 뮤지컬 제작환경에 따른 제한으로 인해 전문적인 뮤지컬 보컬코치가 많이 부족하고 보컬 코치의 개념과 역할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좀 더 자세한 국내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컬 코치 인터뷰로 국내 뮤지컬 보컬 코치 사례를 살펴보았다. 국내에서 현재 보컬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정 코치는 런던 드라마스쿨 마운트뷰 석사졸업 후 한국인 최초로 CMT (Certified Master Teacher)를 취득하여 뮤지컬 ‘영웅’, ‘파리빌리’ 등 뮤지컬 보컬 코치로 활동 중이다. 아래 내용은 김민정 코치와의 인터뷰와 자료를 참조하여 정리해 보았다.

국내 뮤지컬 작품에서 보컬 코치는 어떻게 영입되는가?

: 국내 제작사 음악부분 책정금액에 따라 스태프들의 구조가 정해지기 때문에 보컬 코치는 측정금액이나 필요에 따라 유무가 정해진다. 해외 뮤지컬에서는 보컬 코치가 제작 과정 중 크리에이티브 팀에서부터 소속되어 계약되어지고 있지만 국내 뮤지컬의 경우 제작팀 소속이 아닌 2차 음악 스태프 계약으로 체결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작자가 작품에서 보컬 코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직접 영입할 경우도 있고 음악감독의 필요를 통해 작업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국내 뮤지컬 음악부분에서 보컬 코치의 위치는 어떠

한가?

: 보컬 코치는 음악감독과의 소통을 통해 연출의 작품의도와 맞는 음악적 분석과 각각의 뮤지컬 넘버가 불리는 상황과 가사의 의미까지 배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한다. 음악감독과 종속관계는 아니지만 미리 연출과 작품의도를 파악한 음악감독의 요구에 따라 소통하여 배우들을 코치한다. 국내에서는 대부분 보컬 코치를 따로 두지 않고 음악 감독이 보컬 코치를 겸하게 되거나 조감독이 그 역할을 돕기도 한다.

뮤지컬 작품에서 보컬 코치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 하는가?

: 뮤지컬 작품에서 어느 정도 기본 발성을 하는 배우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보컬 코치는 장르에 따라 필요한 가창법 즉, 음색의 퀄리티를 찾아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구연해야 하는 스타일에 따라 곡을 해석하고 끝음 처리나, 곡의 라인을 정리하고 표현하는데 돕는 역할을 한다. 또한 캐릭터에 따른 음색 설정을 하고 건강하게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돕는다. 음색창조 시 후두의 위치를 어떻게 하는지, 음성기관의 근육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가르쳐준다. 목을 보호하는 방법과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통해 공연기간동안 건강하게 노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한다.

국내의 보컬 코치는 제작비에 따라 유무가 정해지고 부재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나 혼자서 그 역할을 한다. 때에 따라 앙상블 연습을 위해 지휘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김민정 코치는 대부분 앙상블 연습보다는 주연 배우들과 일대일로 만나 코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디즈니 뮤지컬 영화 <미녀와 야수>만 하더라도 보컬 코치가 대거 참여하여 출연자들을 나누어 개인 코칭을 하거나 분업화 하였다. 국내에서는 아직 공연되지 않았지만 뮤지컬 <마틸다>의 경우 어린 아이들이 많이 출연하기 때문에 보컬 코치의 필요가 더욱 요구되었다. 물론 해외에서도 모든 뮤지컬 작품에서 보컬 코치를 영입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내 상업 뮤지컬의 경우 작품의 규모가 큰 것이 대부분이고 장기간 공연으로 인한 배우들의 목소리 관리와 균형을 위해 보컬 코

치의 역할이 필요하다.

### 2.3 뮤지컬 보컬 코치의 기능과 역할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 티처(Voice Teacher)와 보컬 코치(Vocal Coach)의 개념을 헷갈려 하거나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보컬 코치는 보이스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보이스 티처의 역할에서 더 광범위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클래식 보컬 코치의 경우 다양한 언어로 노래하는 성악가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언어적 능력과 이해가 필요하며, 뮤지컬 보컬 코치는 광범위한 장르 안에서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때에 따라 지휘자로 또는 음악 감독의 보조적인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11]. 보이스 티처가 건강한 소리와 개인의 가장 편안한 소리를 찾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면, 보컬 코치는 장르에 따른 정형화된 소리의 구분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소리의 구사와 표현, 그리고 음악적 해석으로 곡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보컬 코치의 역할과 기능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첫째로 워밍업과 발성 훈련, 둘째로 스피킹 보이스(Speaking Voice)와 캐릭터에 맞는 음색창조, 셋째로 가사의 발음을 통한 노래와 드라마의 연결, 마지막으로 다양한 음악 장르에 대한 이해를 위한 훈련들이 있다. 좀 더 자세히 단계별 기능과 역할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워밍업과 발성 훈련

보컬 훈련은 단지 듣기 좋은 목소리를 위한 것이 아닌, 건강하게 노래할 수 있는 몸을 갖추고 감정표현의 균형을 오래도록 유지하며 노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2]. 스포츠에서 운동을 하기 전 스트레칭을 하는 워밍업의 단계가 있다면, 가창을 하기 전에도 스포츠와 같이 워밍업이 필요하다. 가창 시 우리 몸의 많은 근육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목의 근육들이 다치지 않도록 몸과 목을 풀어주는 작업을 가장 먼저 한다.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의 메이킹 영상을 보면 보컬 코치와 함께 목을 푸는 장면이 나온다. 주연 배우들이 하나같이 입술풀기(Lip Trill)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워밍업(Warming-up)작업을 통해 동시

녹음으로 진행된 이 작품에서 샷이 들어가기 직전 가능한 소리와 감정 상태를 한 번에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쉽고 편안하게 노래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의외로 배우들 중에서도 자신의 목소리가 어떠한 원리로 음정을 맞추며, 소리를 내는 지에 대해 알지 못한 채 노래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소리를 교정하는 작업과정 중 어디서부터 어떻게 자신의 목소리와 몸을 컨트롤해야 할지에 대해 당황하거나 어려워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보이스 티처를 따로 두거나 보컬 코치를 통해 해결한다. 보컬 코치는 배우가 스스로 자신의 몸이 악기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자세정렬, 후두와 성대를 비롯한 몸의 구조, 근육의 움직임에 대해 알려주며, 대사를 노래로 전달하기 위한 다른 가창과 구분되어지는 발성법들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밝고 시끄러운 소리이며 오케스트라를 뚫을 수 있는 소리라고 하는 트윅 창법과 고음에 있어서 저음과 같은 흥성소리를 표현해내는 벨팅은 뮤지컬 발성법 중 특징적인 창법들이다[13].

둘째, 스피킹 보이스(Speaking Voice)와 캐릭터 음색 창조

오랜 시간 말을 하고 나서 쉽게 목이 쉬거나, 노래를 할 때와 말하는 목소리가 매우 상이한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는 대사에서 노래로 이어지는 구도의 뮤지컬에서 이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노래는 말의 확장이며 말하는 목소리와 노래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신에게 편안한 목소리 톤을 찾고 자신의 음역대를 알고 노래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레파토리를 고를 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뮤지컬은 자신의 감정상태로 노래하는 가수와 달리 작품의 캐릭터의 상황과 감정상태에서 노래해야 하기 때문에 캐릭터에 맞는 새로운 음색을 창조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다. 때문에 뮤지컬을 노래할 때는, 순수한 형태로써 하나의 음색만을 사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음색을 서로 섞어 사용하기도 한다[14]. 각각의 음색은 성도 안의 근육과 구조의 배치상태, 즉 보컬 셋업(Vocal Set-up)에 따라 달라지며 각각의 구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다. 음색의 사용에는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스피치 음색

스피치 음색은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직접적인 소리이며 뮤지컬 레파토리 뿐 아니라 대중음악에 널리 사용되는 음색이다. <미스사이공>, <지킬앤 하이드> 같은 작품에서 사용된다.

② 팔세토 음색

팔세토 음색은 애정과 상처, 또는 불명확함을 표현하는데 효과적인 음색이며, 남녀 모두 사용 가능하다. 스티븐 손다임의 뮤지컬 <인투더우즈>의 ‘나와 함께 있어 줘’(Stay with me) 곡을 예로 들 수 있다.

③ 크라이 음색

크라이 음색은 발라드를 부를 때 사용하는 따뜻하고 친밀함을 주는 목소리이다. 로맨틱한 열정의 표현, 깊은 감정이 요구되는 모든 뮤지컬 장르에 사용된다.

④ 트윅 음색

트윅 음색은 목소리에 화려함과 강렬함을 더해주기 때문에 공연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코믹하거나 광적인 또는 신경질적인 캐릭터를 소화하는데 자주 쓰인다.

⑤ 오페라 음색

오페라 음색은 특정한 배역이나 특정 노래를 표현할 때 사용된다. 가장 큰 예로 <오페라의 유령>을 들 수 있다.

⑥ 벨트 음색

마지막으로 벨트 음색은 재미있고, 변덕스럽거나 활기찬 여자 캐릭터에 특징적으로 사용되었다. 현재는 좀 더 널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음색이며 남녀 모두 사용 가능하다. 강렬한 감정 상태나 상황에 대한 음성적 표현이며, 기쁨, 절망, 분노, 좌절, 충만함 등의 고조된 감정을 표현할 때 쓰인다. 락 뮤지컬과 가스펠 뮤지컬에서도 벨팅은 음성적, 음악적 양식의 한 부분으로서 사용된다[15].

이러한 음색창조를 위한 작업은 적절한 음성기관 근육의 조절을 통해 노래 연기로 연결되어진다. 음색 창조는 극중 캐릭터 분석을 통한 심리상태의 표현과 효과적인 전달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목을 다치기 쉽다. 때문에 보컬코치와의 필수 작업 중 하나이다.

#### 셋째, 가사의 발음

서양의 클래식 보컬 코치 중에는 다양한 언어로 노래하는 클래식 노래를 소화해 내기 위해 여러 가지 언어 코스를 필수로 수료하고 가르치는 보컬 코치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뮤지컬은 대부분 그 나라의 언어로 제작되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의 지도는 필요하지 않지만 노래 전달을 위한 가사 발음 지도에 대한 부분은 필수적이며 그만큼 중요하다. 국내 대형작품들 대부분이 외국 작품들을 번안해서 올려지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로 대사하거나 노래할 때 가사 번역의 문제로 배우들이 가사 전달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보컬 코치는 한국어 가사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다듬어주고 지도해야 한다. 오페라에서는 고음 음역대가 강조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음을 내는 것에 치중되어 왔다. 하지만 뮤지컬은 대부분 저음 음역대에서 노래를 하고 대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을 통해 가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16]. 가사의 모음은 자음보다 더 잘 들리며 음정을 유지하기도 더 쉽다. 즉 노래를 단지 들리게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자음은 모음을 따라갈 수 없다. 하지만 노래하는 배우에게 관객이 텍스트를 명료하게 들을 수 있도록 자음과 모음의 사이의 균형을 찾아줄 수 있어야 한다[17]. 뮤지컬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지만 음악은 가사와 섞여들면서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말이 생각을 여과해 낸 것이라면 음악은 주인공의 가장 내면적인 성격을 표현하고, 관객들로 하여금 노래하는 사람의 분위기에 젖어 들게 하는 힘이 있다.

#### 넷째, 다양한 장르에 대한 이해

뮤지컬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사용되어진다. 때문에 다양한 장르에 따른 가창법과 리듬사용, 악센트, 템포와 음조의 변화 등에 따른 해석을 통해 장르에 맞는

음악을 표현해 내어야 한다. 또한 장르에 따른 표현과 발성법도 달라져야 한다[13]. 뮤지컬 음악에서는 다양한 장르가 쓰이기 때문에 변화가 다른 리듬 강세에도 익숙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뮤지컬 보컬 코치는 클래식, 록, 팝, 재즈 등 다양한 음악 장르에 대한 이해와 음악적 표현 방법을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외에도 보컬 코치는 곡을 완성시키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목소리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주의사항 및 보호하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뮤지컬 배우들은 성악, 무용, 실용음악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작품 캐릭터에 맞는 배우들을 작품에서 만났다 하더라도 각각의 노래에 맞는 리듬이나 가창법을 구사하지 못한다면 발성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어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균형 잡힌 노래의 라인과 흐름을 완성하기 위해 연출의 의도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배우를 지도할 수 있는 좋은 보컬 코치의 역할은 작품에서 중요하게 작용된다. 작품의 결과를 눈앞에서 보여주는 배우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보컬 코치의 기능과 역할이다.

### III. 결론

2000년대 이후 한국의 뮤지컬 산업은 빠른 속도로 발전되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체계화되지 못한 시스템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뮤지컬 배우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보컬코치의 역할이 불분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현재 해외 대형 뮤지컬에서는 배우들이 보컬 코치에게 훈련을 받고 부족한 부분들을 해결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보컬 코치에 대한 개념과 역할이 불분명하여 그 역할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크리에이티브 팀의 세분화 사례와 국내 보컬 코치의 사례 인터뷰를 통해 뮤지컬 보컬 코치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크리에이티브팀 전문 인력의 세분화, 그 중 보컬 코치의 필요성을 알리고 수많은 국내 대형 뮤지컬이 올려짐에도 불구하고

고 시스템이 바뀌지 않고 있다. 제작비 예산에 따른 제한으로 보컬 코치와 같은 세분화된 전문 인력들의 투입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지만 장기간 작품을 이끌어가는 배우들에게 직접적인 필요를 채워 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제작비 책정시스템의 변화와 인식뿐 아니라 해외 보컬 코칭 분야의 교육 시스템의 정착 또한 필요하다. 국내 뮤지컬 시장의 확장과 규모에 비해 뮤지컬 발성법에 대한 정립이나 교육적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접할 수 있는 기회조차 많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발성법들로 많은 보이스 티처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대중음악 가수들과 실용음악 학생들을 위한 보컬 트레이닝에 대한 관심이 높고 보다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뮤지컬 발성에 대한 자료와 이해는 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보편화된 실용음악이나 클래식 발성법과는 다르게 뮤지컬 발성법에 대해 제대로 접할 수 있는 기회조차 다양하지 못하다. 앞에서 보이스 티처와 뮤지컬 보컬 코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위밍업과 발성 훈련은 모든 보컬 분야에서 공통되는 보이스 티처와 보컬 코치의 역할이다. 하지만 스피킹 보이스(Speaking Voice)와 음색창조를 통한 극 중 캐릭터에 따른 가창 훈련, 대사 사이의 노래 가사와 발음을 통한 훈련, 그리고 다양한 장르에 따른 가창 훈련은 뮤지컬 보컬 코치만의 구별되는 기능과 역할들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뮤지컬 보컬 코치에 대한 교육적 시스템도 드물어 많은 돈을 들여 해외에서 교육을 받고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다. 기본 발성법에 대한 교육적 시스템은 많이 형성되어져 있지만 이제는 나아가 배우가 무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테크닉과 전반적인 능력을 가르치는 뮤지컬 전문 보컬 코치들을 위한 교육적 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보컬 코치들의 양성 뿐 아니라 뮤지컬 보컬 코치를 희망하는 보이스 티처들을 재교육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영국의 길포드 대학(Guildford School of Acting)의 프랙티스 보이스 앤 싱잉(MA Practice Voice & Singing)은 뮤지컬 보컬 석사과정으로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미국의 음성학자 조에

스틸에 의해 만들어진 조에스틸 보이스 트레이닝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뮤지컬 발성법 교육 양성 프로그램으로 여러 단계의 전문 프로그램과 시험을 통해 보컬 코치 자격증이 주어진다. 또한 전미 보컬 강사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Teachers of Singing)에서는 2년에 한 번씩 미국 지역을 옮겨 다니며 크게 개최되어 뮤지컬 보컬 코치와 보이스 티처들을 위한 워크샵과 마스터 클래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좋은 배우와 보컬 코치들의 양성에 힘쓰고 있다. 보컬 코치를 위한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해부학적 접근(Anatomy), 발음(Diction), 보이스 퀄리티(Voice Qualities), 보컬 헬스(Vocal Health) 등을 바탕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국내에서는 대구 뮤지컬 페스티벌에서 매년 뮤지컬 아카데미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창작자와 뮤지컬 배우를 위한 두 과정이 있는데, 창작자 과정에서는 작가와 작곡가를 대상으로 하고 뮤지컬 배우 과정은 뮤지컬 배우를 희망하는 이들만을 대상으로 보컬, 안무, 연기를 지도한다. 2012년 충무로뮤지컬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충무아트홀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뮤지컬 아카데미에서는 보컬 집중 트레이닝 과정이 따로 있지만 이 또한 배우를 희망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보컬 코치 전문가가 아닌 음악감독으로 활동하는 강사진이 지도하고 있다.

영국과 유럽, 미국 브로드웨이가 세계적인 뮤지컬 작품을 생산해 낼 수 있었던 기반이 작품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창작자들의 노력과 그것을 뒷받침해 줄만한 사회적, 교육적 시스템이 잘 정착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조명해 볼 때 한국 뮤지컬은 여전히 많은 과제를 떠안고 있다.

뮤지컬 발성법과 교육적 시스템이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기에는 많은 지원과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작업이지만 이러한 시도들을 통해 필요성을 알리고, 국내에서도 많은 뮤지컬 보컬 코치들이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양성되어 국내 여러 작품에서도 보컬코치의 역할들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



참고 문헌

- [1] Broadway League, *Broadway in NYC*, 2017.
- [2] 문화 산책, *2016년 뮤지컬 시장 전망*, 매거진 The Musical, 2016.
- [3] 신소영, *뮤지컬 보컬 코치 연구*, 단국대학교 대중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4] 기정선, *한국 뮤지컬계의 음악감독 역사 및 작업 사례연구*, 국민대 일반대학원 공연영상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 [5] 스티븐 시트론, *뮤지컬*, 정재왈, 정명주(역), 미메시스, 2001.
- [6] 기정선, *한국 뮤지컬계의 음악감독 역사 및 작업 사례연구*, 국민대 일반대학원 공연영상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 [7] Aron Frankel, *Writing The Broadway Musical*, New York: Da Capo Press, 2000.
- [8] Fred Silver, *Auditioning for the Musical Theatre*, A Penguin Book, 1988.
- [9] Millie Taylor, *Singing For Musicals*, The Crowood Press, 2008.
- [10] Anne Peckham, *The Contemporary Singer*, Berklee Press, 2000.
- [11] 전기영, *보컬 트레이닝의 정석*, 예술, 2016.
- [12] Fred Silver, *Auditioning for the Musical Theatre*, A Penguin Book, 1988.
- [13] 강경아, *노랫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보컬코칭 방안 및 사례연구*, 국민대학교 종합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14] 질리안 키이즈, *노래하는 배우*, 류미 명현진 옮김, 동인, p.211, 2015.
- [15] Millie Taylor, *Singing For Musicals*, The Crowood Press, 2008.
- [16] 질리안 키이즈, *노래하는 배우*, 류미 명현진 옮김, 동인, pp.240-247, 2015.
- [17] Norman Spivey, *On The Relationship of Speech and Singing*, Journal of Singing, Vol.64, No.4, pp.3-4, 2008.

저자 소개

임지현(Ji-hyun Lim)

정희원



- 2005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성악과(음악학사)
- 2014년 12월 : 버클리 음악대학(Diploma)
- 2015년 8월 : 국민대학교 종합예술대학원 뮤지컬 씨어터(연극학 석사)

▪ 2016년 3월 ~ 현재 : 순천향대학교 아시아학과 및 공연영상학과 외래교수

<관심분야> : 뮤지컬, 재즈, 보컬 페다고지, 보컬코치

민경원(Kyung-won Min)

정희원



- 1999년 5월 : 뉴욕 시러큐즈 대학원 석사(MFA)
- 2006년 2월 :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박사(DFA)
- 2001년 ~ 현재 : 순천향대학교 공연영상학과 교수

<관심분야> : 영화영상제작, 문화산업